



우리 광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창출해야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대중예술을 주도해 나가는 '문화강국'으로서 방송, 영화, 게임 등 다방면에서 성과를 내며 글로벌 7대 콘텐츠 수출 대국으로 도약했습니다. 광고 또한 창의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콘텐츠산업으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세계 곳곳에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의 가치를 전파하며 대한민국과 우리 기업의 위상을 드높여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좋은 광고로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힘써온 광고주와 광고회사, 그리고 한류 콘텐츠의 산실(産室)인 미디어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산업과 기술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연결과 융합이 일어나는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광고의 역할을 찾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먼저,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이 자유로운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한편, 새로운 마케팅 트렌드를 주도하여 우리 광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창출해 나가야겠습니다. 또한 과학적인 광고효과 측정, 통합시청조사, 통합ABC 실현을 통해 콘텐츠와 플랫폼 융합 시대에 걸맞은 효율적인 광고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Free market, Free communication, Free choice'를 모토로 열린 광고주대회 기념 특별 세미나는 "광고시장의 미래와 우리 국민의 미디어 이용행태를 살펴보고 통합광고효과 조사 결과"를 제시한 공론의 장으로서 그 의미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광고주협회가 유사언론의 광고시장 교란 행위 견제를 통한 건전한 광고·미디어 문화 정착을 위해 '반론닷컴TV'를 지난 9월에 런칭하였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우리 경제 및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는 왜곡·과장 보도를 바로잡는 광고계의 입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니, 많은 관심과 응원을 당부드립니다.

광고는 시장경제의 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협회는 광고가 국가 경제의 선순환 성장과 일 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우리 기업이 광고를 통해 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글로벌 시장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국광고주협회 회장

이정제